

## < 출 장 개 요 >

### 출장 목적 및 배경

- Annual Meeting of the CSMEE Informal Steering Group on SME and Entrepreneurship Financing and Country Experts 참석

### 회의 내용

- Annual Meeting of the CSMEE Informal Steering Group on SME and Entrepreneurship Financing and Country Experts 에서는 다음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
  -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24: An OECD Scoreboard
  - Outcomes of the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Ministerial Meeting
  -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OECD Recommendation on SME Financing: Leveraging the Scoreboard
  - Fostering SME resilience: Expanding SME access to equity finance
  -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for SME finance and policy responses
  - Financing SMEs for Sustainability
- 정부대표단 OECD 전문작성
- SME Financing 관련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
  - 주제 : SME Financing during COVID-19 period in Euro area

### 출장지 및 방문기관

- 출장지: 프랑스 파리
- 방문기관: OECD Conference Centre

### 출장자

- 출장자명 및 소속: 거시·금융정책연구부 김미루 연구위원

### 예산명

-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 출장일정

- 김미루 : 2023년 9월 5일(화) ~ 9일(토) (입출국일 포함, 3박 5일)

## I. 회의명

국문 : OECD 중소기업 금융 국제 전문가 연례 회의

영문 : Annual Meeting of the CSMEE Informal Steering Group on SME and Entrepreneurship Financing and Country Experts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23.09.06.(목)~ 09.07.(금), 파리 OECD 본부

III. 주관기관 : OECD CFE(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IV. 참석자 : (한국대표단) : KDI 김미루 연구위원 (여타국) :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멕시코, 캐나다, 세계은행 등 30여 개국 및 3개 국제기구 · 공공기관 · 민간단체 대표

## V. 핵심요지 :

- OECD 회원국들은 장기간 지속된 고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통화긴축 장기화로 중소벤처기업 금융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동시에 코로나19 진행되던 각종 정책금융 정책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차환(roll-over)이 제약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함.
- 추가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국에서 부동산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논의함.
- (우리 대표단 활동)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환경에 대해 전달하고 코로나19 시기 진행되었던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이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중소벤처기업 금융시장 전반에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님을 전달함.

## VI. 상세내용 :

### □ 세션 1

- (Salvatore Zecchini, Chair of the Informal Steering Group)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financing 조건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이는 근원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각국의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음에 따라 각국의 재정지출 여력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financing 조건이 한동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financing gap은 작은 기업일수록 그 영향이 크다.

## □ 세션 2

- (Miriam Koreen, Senior Counsellor on SMEs ) 35개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다. Country profile에 대해서는 25개 국가가 제출을 했고 22개의 국가는 기다리고 있다.
- (Camila Jimenez, Junior Policy Analyst, CFE)
  -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세를 보면 그 회복세가 상당히 불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 그에 따른 통화긴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로 2022년 중소벤처기업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4% 감소했다. 이는 2021년의 0.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liquidity position악화에도 기인하고 SME들의 default 위험이 상승한 것과도 연관된다. 특히 EU국가들에서 그 감소세가 컸으며 파산율도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본 것과도 관련된다.
    - 특히 Venture capital이 매우 빠르게 감소했다. 2022년에 약 16.2% 감소했는데 이는 2021년에 60%나 증가했던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주로 이자율의 상승과 주요 금융기관들이 안전자산으로 수요를 전환한 것과 관련된 결과이다. 특히 취약그룹의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자본의 조달비용도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통화긴축의 결과이며, risk premium의 증가로 금융기관들이 SME들에게 담보 요구조건을 약 3.3percentage point 상승시켰다. 따라서 SME들도 debt financing을 상당부분 포기했다. 이는 2021년에서 2022으로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약 1.2pp 상승하고 대출 application이 약 3pp감소한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영국, 호주, 스페인, 벨기에에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Risk premium의 상승은 SME의 파산이 약 21% 상승한 것과도 관련이 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NPL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NPL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조했기 때문이다.
    - 장기적으로는 green investment와 digital financing을 이용해서 SME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성별에 따른 financing의 격차도 존재하는데 이를 좀 더 많은 국가에서 data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Miriam Koreen, Senior Counsellor on SMEs ) 향후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core indicator을 더욱 풍부하게하고 지역별, 성별, 규모별, sector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프랑스 대표) 프랑스의 기업 파산이 상당히 상승했는데 이는 global crisis에도 기인하고 COVID 기간에 기존과 매우 다른 기업들도 발생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COVID 이후 상당부분 버티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런 점들이 data에 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영국 대표) 2022년에 중소벤처기업 신규 대출이 감소한 것이 정책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도 위험이 상승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대출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한편, Fintech의 발전이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대출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증진할 수 있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미국 대표)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여 Fintech나 Alternative financing의 영향을 살펴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특히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핀테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새로운 금융업체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공급에 핀테크와 대안 금융기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세계은행 대표) 기업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매우 놀랍다. 이에 대해서 세계은행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별, 인종별로 자금 조달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한 데이터가 좀 더 수집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유럽 주요국과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만간 직접 방문하여 자금 조달에 기업 대표의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계획에 있다.
- (Miriam Koreen, Senior Counsellor on SMEs)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한 feedback을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겠다. 특히 최근 SME financing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수요측면이 더 주요한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공급측면이 더 주요한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 □ 세션 3

- (Caroline Roulet, Economist, Financial Economics Unit, DAF)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하지만 아직 2%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높은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장기국채 금리가 주요국 모두에서 상승하고 있음.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이는 단지 debt-financing 뿐 아니라 equity financing도 어렵게 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반면, 국가에 따라 회사들의 수익은 diverge하고 있음. 이는 일부 국가에서 회사채 발행을 어렵게 하고 동시에 신용스프레드의 확대를 야기함. 특히,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조달비용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시킴.
  - 위와 같은 거시금융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COVID 기간동안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던 회사들이 Debt Service Ratio가 악화되고 있고 향후 몇 년에 걸쳐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refinancing 위험이 상승함.
  - 이는 결국 신용프리미엄(risk premium)의 상승을 야기하고 다시 회사채 수익률 상승을 야기하게 됨.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채무구조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은행의 파산을 야기할 수 있고 회사채 금리를 매우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 또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되는 비은행들의 파산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프랑스 대표) 프랑스의 경우 이자율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이 큰데 이것이 프랑스에 국한된 것인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함.
  
- (Salvatore Zecchini, Chair of the Informal Steering Group) 최근 통화정책 기조를 보면, 유럽의 통화긴축은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유럽과 미국의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신용할당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 이자율을 올리고 신용 할당(credit rationing)을 심화시키는데 지금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결과 담보 요구조건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Caroline Roulet, Economist, Financial Economics Unit, DAF) 미국에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매우 많아서 이것이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이 현상이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회사채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의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좋지만 많은

유럽국가의 회사채 시장은 유동성이 좋지 않다. 이에 따라 risk premium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 (Gary Roseman, Economist,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의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의 이슈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대출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재 확장적 경영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금 수요도 큰 폭으로 축소됨. 미국의 경우 전체 대출 중 약 47%가 중소벤처기업의 대출로 구성됨. 하지만 2023년 1/4분기에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동시에 중소벤처기업 대출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2022년부터 점차 상승함.
  - 미국의 경제 규모에서 약 48% 정도의 노동자가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중 약 62%를 소규모 기업에서 창출함. 미국에서는 소규모 기업도 equity-financing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영국 대표)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 equity-financing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것이 미국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함.
  
- (Gary Roseman, Economist,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의 정부가 일부 투자기업에 보증을 서고 해당 투자 기업이 은행에서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equity-financing을 지원하고 있음.
  
- (Samuel Struijker Boudier, Policy Officer, 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네덜란드는 최근 현금대출 계좌의 잔액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단기 자금 시장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반면, 일반대출 계좌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큰 규모 대출 위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관련해서 최근 비은행 혹은 대안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업권의 자산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
  - 한편, 대출의 거절률이 COVID 시기 빠르게 치솟은 후 하락하였는데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남. 대출 거절률의 변동성이 큰 것은 아마도 여전히 3개의 큰 은행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관련하여, 여전히 네덜란드의 금융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높은 편이며 최근 대안 금융사들이 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음. 이들의 향후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René Orozco, Policy Analyst, DEV) 최근 라틴아메리카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공급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물론 고금리 상황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0년전과 비교해서 자금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정부가 역할을

하는 대출에서 벗어나 점차 private sector에서 자체적으로 자금 공급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 세션 4

- (Marija Kuzmanovic, Policy Analyst, CFE) 지속가능한 금융은 대기업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과도 긴밀히 연관된 문제임. 결국 중소벤처기업도 지속가능한 금융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자금 공급이 지속되면서 중소벤처기업 자금 시장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55% 중소기업이 기후 변화 정책에 대응하지 못해 관련된 금융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약 70%의 중소기업이 추가적인 자금 공급이 있어야 net zero 정책에 참여할 수 있음을 피력함.
  - 전반적으로 보면 약 40조 달러의 자산이 ESG 자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이는 새로운 규제들이 투자 기업들의 자산이 ESG 자금 시장으로 공급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 계획이 ESG 의무를 충족함을 데이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크게 금융의 관점과 비금융의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ESG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먼저 금융 정책으로는 직접적으로 ESG 참여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세제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반면 비금융 관점으로는 정부의 mentoring 프로그램을 통해 ESG 참여를 위한 준비과정을 보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OECD Secretariat - DAF/ENV) 어느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각 금융회사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 이에 따라 ESG 금융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측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현재 OECD에서 고민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관련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통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 대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을 때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정부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함. 관련하여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관련한 대출에 정부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함.
- (Marco Marchese, Policy Analyst, CFE)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보증기관들이 유럽 전역에서

보증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해 금리와 자금 요구조건도 하향 조정하고 있음. 관련한 노력을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공급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 (Felix Haas, Director EU financial instruments, European Association of Guarantee Institutions (AECM)) 중소기업들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aggregate indicator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통해 어느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음. 또한 추후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ESG financing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음. Aggregate indicator 구축을 위해 각 중소기업들의 지표를 매출규모 혹은 종업원 수 등으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이 존재함. 잠재적으로 지표를 구성해 본 결과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의 국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 국가들 중 프랑스와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한편, 탄소 방출과 관련하여 스웨덴과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리스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 □ 세션 5 & 6

- (Lucia Cusmano, Deputy Head of Division, CFE) COVID19 기간 동안 약 20~40%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부 보조를 받음.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이 특히 많은 정부 보조 정책을 시행했으며 한국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함. 이제 급박한 정책환경에서 변화하여 좀 더 장기적인 시각,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중소벤처기업 금융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경기 둔화, 높은 물가상승률, 이자율 상승 국면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한편, 여전히 선별된 자금 공급과 동시에 비금융적인 지원도 동반되는 것이 중요함.
- (칠레 대표) 남미 국가의 경우 정부 지원 정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예를 들어, 약 60개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정확한 정책 대상을 선정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금융 제도의 마찰적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대표) 프랑스에는 리바운드라고 불리는 정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COVID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임. 다른 국가들에도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 얼마나 유용하게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공금함.

- **(이스라엘 대표)** 자금의 수요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남미의 경우와 유사하게 매우 복잡한 지원절차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해서 정책 금융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이 많음. 이에 따라 수요 측의 어려움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대표)** 최근 금리 상승 국면에서 캐나다의 중소벤처기업들은 equity-financing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equity-financing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조가 필요한지 OECD 보고서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함.
- **(Miriam Koreen, CFE)** 이번 보고서를 위해서 좀 더 증거기반 연구를 확충하고자 함. 또한 각국의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자 함.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존의 주된 자금 공급처인 은행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금 공급도 진행하고자 함.

## □ 세션 7

- **(Marco Marchese, Policy Analyst, CFE)** 일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의존도가 높음.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등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은행 이외의 대안적인 자금 공급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특히 벤처캐피탈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9개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벤처캐피탈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보조하는 공공 정책의 특징을 살펴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 속함)
  - 이들 국가에서 벤처캐피탈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었으며 주로 deep-tech, green tech 회사들에게 자금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 때 정부의 역할은 벤처캐피탈에 자금 일부를 공급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보조가 동반됨. 벤처캐피탈 중 정부 투자 비율은 국가마다 다양한데 주로 20~50% 이내로 추정됨. 그럼에도 벤처캐피탈 기업들의 투자 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됨. 그 결과 벤처캐피탈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향후에도 정부에서 보조하되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특히 영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운용이 잘 되고 있으며 세제 혜택도 다양하게 주어짐. 독일의 경우는 벤처캐피탈이 가족경영 중소기업들에게도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R&D 기업들 위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튀르키예 대표)** 튀르키예의 경우 유럽 보증연합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공급받고 있고 이것이 튀르키예의 중소벤처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음. 이 자금들은 기관 투자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되거나 직접 공급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고 있음.
- **(유럽보증연합 대표)** 벤처캐피탈 시장은 매우 역동적인 시장인데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자금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는 한 국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임. (이는 실제로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모태펀드 등 정부자금 공급도 유지 및 확대되고 있음.)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펀드들의 펀드인 정부 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유럽의 경우 몇몇 국가들에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미국 대표)** 미국의 경우 deep-tech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탈을 최근 출범했고 이 펀드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초기단계 뿐 아니라 뒷단계 벤처회사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영국 대표)** 영국의 경우 매우 빠른 시기부터 벤처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간접적인 자금 공급에 집중했다면 팬데믹을 겪으며 최근에는 좀 더 직접적인 자금 공급에도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정책자금 운영이 보다 경기역행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 둔화 시기에 운영자금을 늘리고 경기 활황기에는 자금을 축소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은행 대표)** 중소기업대표의 성별에 따라 자금공급 성패 및 규모가 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고 정책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종의 affirmative action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Karl Reckziegel, Senior Vice President, Venture Capital at BDC Capital,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모든 산업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특히 장기 대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모두 진행하고 있음. 간접 투자의 경우 약 149개의 펀드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간접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함.
  - 캐나다의 경우 정부 보조로 인한 사적 기금의 확산 효과는 private/public

multiplier로 추정되며 약 6배 정도로 나타남. 이는 정부에서 시작된 자금 공급이 사적 펀드에서 추가 자금 공급으로 연결되어 그 규모가 정부 보조금 대비 약 6배로 형성됨을 의미함.

○ (Fiona Morril, Senior Manager and Economist, British Business Bank)

British Business Bank의 경우 여성 사업가와 인종간 다양성등을 고려한 자금 공급을 진행하고 있음. 실제로 전체 자금 공급 중 약 70~80%의 자금이 남성 사업가에게 공급되고 있고 반면 10% 내외가 여성 사업가에게 공급되고 있음. 나머지가 남녀 공동사업가에게 공급되고 있음. 따라서 벤처캐피탈 시장에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음.

- 정책 고민의 배경에는 결국 일종의 차별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자금 공급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몇몇 정책 실험의 결과 벤처캐피탈이 여성 등 상대적으로 소수인 자금 수요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office hour를 진행하게 하거나 자금 공급 이후 이들의 성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게 하는 등의 정책이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책이 자금 공급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 시킬 것이라 사료됨.